

리아호나 2011

지역 소식

북아시아 지역을 떠나는 최윤희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4년 간 봉사하던 최윤희 장로가 교회 본부로 부름을 받았다. 최윤희 장로는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한국의 성도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수많은 모범과 가르침을 전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할 때마다 늘 울먹였던 최윤희 장로와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말씀을 마쳤던 구본경 자매는 한국 성도들을 향해 아쉬움과 함께 못다한 사랑을 전했다.

사랑하는 한국 성도 여러분,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임무를 받고 수행해 온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고 이 지역을 떠난다 생각하니 무언지 표현할 수 없는 느낌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감사, 여러분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두 눈과 가슴이 젖어듭니다.

그 동안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함께 호흡하고 일궈 왔던 이 포도원에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보아 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굳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우시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춤과 끼로 뽐어내는 청소년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깊은 간증, 지체 없이 선지자를 따르는 용감한 청년 용사들, 이들에게 임하는 영, 힘, 계시, 그리고 변화……. 모두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은 제 사진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없이도 저는 늘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과 그때 임했던 영을 저희들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마다 저는 힘과 용기를 받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의 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 지역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사랑과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언으로 일깨워 주셨던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어려운 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저의 신앙과 성품이 다져졌고 조금이나마 성숙하게 되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어렵고 분주한 가운데 늘 새로이 일어서시는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그런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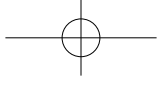
진심으로,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랑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뵙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 본부에 가서 많이 배우고 성장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내 모두 평안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사랑을 간증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다 이기고 의 안에서 기쁨으로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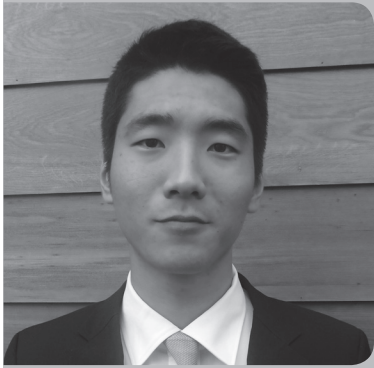
안녕히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최윤희 올림. ■



선교사들이 전하는 간증 ②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성신이 인도하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 나는 군인이었다. 제대할 무렵이 되었을 때 도벽에 시달리던 후임 병사 중 한 명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그 병사는 그날 이후로 괴로움과 수치심 때문에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지휘관 중 한 명이 나에게 그 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라고 했고, 사건은 바로 그날 오후에 일어났다. 화장실에 간다던 그 병사가 손에 이상한 끈을 들고 있더라고 또 다른 후임 병사가 보고한 것이다. 나쁜 예감이 든 나는 우리가 주로 근무하는 수송부를 향해 뛰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렸다. 그 순간 앞쪽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나는 원래 의도했던 길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순간 다른 쪽 길로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그 느낌에 따라 다시 길을 선택해 가스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 병사는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병사를 끌어내렸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필사적으로 주님께 간구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 병사의 호흡이 돌아왔고 깨어난 그는 나를 보며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날 밤, 그 병사는 나에게 어떻게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여 주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제대하기 전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상담을 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선교사가 되었다. MTC에서 나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경험들을 했다. 특히 성신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성신을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정말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야 성신의 속삭임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대전 선교부, 김준희 장로

선교 임지로 날아온 편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할 무렵, 소속

스테이크에서는 '구조하라'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훈련을 받으면서 내 주위에도 구조할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그 중에서 함께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저활동이 된 친구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났다. 나는 무척 슬펐다.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연락할 수가 없었지만 나는 주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선교 임지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그 친구였다. 친구는 캐나다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 즉시 귀국했고 자신도 나처럼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편지를 통해 전해 왔다. 그 친구는 선교사들과 함께 다시 토론을 하고,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으며, 와드 선교사로 봉사하며 전임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는 검은색 이름표를 달고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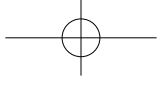
이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주변에는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선교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는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부산 선교부, 이세현 자매

MTC에서 얻은 행복

3주 동안의 MTC 생활은 나에게 행복 그 자체였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과정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복음의 원리들과 훌륭한 교훈들은 내 삶과 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는 MTC에서

위쪽부터: 동료 선교사와 함께 한 김준희 장로(왼쪽), 이세현 자매, 동반자와 함께 한 정현정 자매(오른쪽), 황연준 장로



생활하면서 늘 자애와 사랑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봉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함께 공부했던 모든 선교사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곳은 천국과 같았다.

나는 MTC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서 특히 구원의 계획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다. 나는 우리에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을 주시고 그러한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했다.

나는 MTC에 있으면서 동반자들과 매일 저녁 같이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고 진지했다. MTC는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을 불어넣는 곳이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같은 소망과 꿈을 품은 훌륭한 동지들을 만나는 일은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지 못할 축복이자 행복이었다.

서울 선교부, 정현정 자매

표준을 완전하게 지키며

학창 시절에 나는 적당히 표준을 지키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적당한 머리카락 길이를 유지했고, 복장과 언행도 늘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을 하던 도중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를 만나면서 적당히

표준을 지키는 일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의 등산로는 지금까지의 내 생활과 매우 흡사했다. 나는 등산을 배우지도 않았고 특별한 각오를 하거나 충분한 장비를 착용하지도 않았지만 평탄한 등산로를 걷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마주하면서는 이제까지 산을 오르던 것처럼 했다가는 크게 다치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나는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바위를 올랐는데 해냈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더 가파른 바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날의 도전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내 신앙과 표준으로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 선교 사업을 훌륭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표준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나는 표준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이 그 의무를 피해감으로써 얻는 안락함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막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표준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
부산 선교부, 황연준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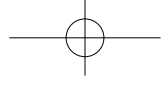


신용인 회장과 지효선 자매

프로보 MTC의 28 지부에는 한국에서 봉사하게 되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곳의 현재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용인 회장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가 한국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짧은 간증과 선교사들이 MTC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지난 2년간 프로보 MTC에서 한국으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을 감리하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선교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아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이전 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선교 사업 프로그램에 감동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프로보 성전에서의 의식을 받고 솔트레이크 성전 및 교회 본부, 연차 대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센터, 태버나클 방문자 센터 등을 둘러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MTC 훈련을 통해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장, 1쪽)라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도 영생과 승영을 받을 수 있으며,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우리 교회의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물문경을 비롯한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 속에 살아야 된다는 간증이 선교사들의 마음속에서 확실히 발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선교 사업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MTC에서 선교사들이 배우는 10개의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지자로부터 받은 선교사 부름

선교사 부름장에는 “여러분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모든 개인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 두고 모든 시간과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진리를 옹호하고 전하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홀런드 장로님께서서는 전임 선교사들은 십이사도들의 선교 사업 의무를 위임받아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십이사도와 같은 선교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성신의 인도 하에 가르침

구도자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선교사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구도자들 자신이 주님의 영을 느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교사들은 성신의 동반 하에 영의 속삭임을 따라 가르칠 수 있도록 매일 준비를 합니다. 성신은 선교사들의 제3의 동반자이며, 선교사들은 영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3. 물문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 탐구

선교사들은 매일 한 시간 이상 개인 경전 공부를 합니다. 또 한 시간 동안은 동반자와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경전공부를 하는 중에 자주 영감과 계시를 받습니다.

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책은 전임 선교사들의 교과서입니다. 3장에서 구도자들을 가르치는 5개의 토론을 중심으로 선교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 줍니다. 선교사들에게 이 책은 경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5.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깨끗해짐

회개를 통해 모든 잘못과 죄로부터 깨끗해 지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시 죄인지 아닌지 궁금한 사항들 까지도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과의 접견과 고백을 포함한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변해야 합니다. 모든 죄로 부터 깨끗해졌을 때야야 선교 사업을 나와서 영의 인도 하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6.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킴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6장에서 제시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소망, 자애, 덕성, 지식, 인내, 겸손, 근면, 순종과 같은 주님의 성품을 매주 한 가지씩 선택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은 동반자부터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7. 주님의 사업에만 전념함

홀런드 장로님께서서는 선교 사업 이후 자기 생애에서 성취한 모든 것은 본인의 선교 사업에서 근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MTC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과거의 세상 생활을 잊고 주님의 사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에 따른 주님의 축복이 일생 동안 같이 할 것입니다.

8. 선교사 규율을 정확히 따름

선교사 규율은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MTC에서 “선교사 지침서” 전체를 첫 주에 공부하고, 선교 사업 기간 동안 매일 5분씩 동반자와 함께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해의 영광과 같은 사회에서 필요한 규율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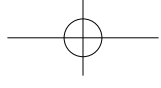
9. 목표와 계획을 세워 주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음

선교 사업 기간은 십일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헌납된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은 매주 주례 목표와 매일 일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짰 뒤, 세워진 계획에 따라 생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속에서 짠 목표와 계획을 잘 실천하면 주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10. 선교 언어를 열심히 공부함

프로보 MTC에서는 50개의 언어를 가르치며, 외국어를 배우는 지역으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은 언어에 따라 9주 내지 12주 동안 MTC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어로 부름 받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도 하지 못하다가 MTC가 끝나갈 즈음에는 한국어로 개인 간증과 기도도 막힘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방언의 은사라는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어 하면서도 부름 받은 나라의 언어 공부에 매일 10시간 이상 매진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저희 부부가 선지자께서 부르신 젊은 선교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MTC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 이 선교 사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MTC는 현대의 예언자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선교사들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 출신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장래의 큰 일꾼들이 될 것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후기 성도 취업 코칭 심포지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함

지난 2011년 6월 18일 서울 남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후기 성도 취업 코칭

심포지엄'이 열렸다. 취업을 희망하는 후기 성도 청년들에게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 모임은 서울 취업 자원 센터에서 주최하고 김창호 장로가 감리했다.

총관리 역원과 신권 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창호 장로는 모임에 참석한 후기 성도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날 모임은 크게 두 가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인 발제를 맡은 김광운 형제는 취업의 방향과 입사 후 근무 태도 등 취업 희망자가 알아야 할

여러 정보를 전달했다. 김광운 형제는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맞는 취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학의 취업 동아리를 활용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실성, 전문성, 노력과 열정, 충성심 등의 근무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순서는 질의응답이었다. 조현석 형제가 사회를 맡은 질의응답은 청년들의 질문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답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시 선교 사업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을 달라는 부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패널들은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으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선교 사업 관련 질문에는 “선교 사업 경험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그 기간 중에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조언이 주어졌고, 요청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첨삭 지도도 해 주겠다고 구체적 해결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 외에도

패널들은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보라’, ‘인맥이 중요하다’, ‘면접할 때 떨린다면 구두 속 발가락을 떨어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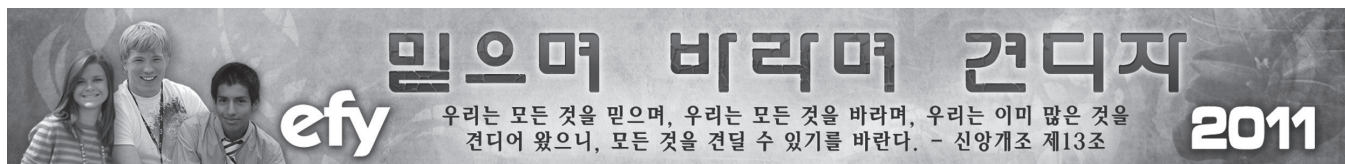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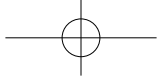
서울 취업 자원 센터에서 봉사하는 권찬태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여러분께 현대판 삼강오륜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삼강, 즉 세 가지 강점은 컴퓨터와 영어 실력,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오륜은 바로 성실성과 인화력, 창의력과 도전정신, 마지막으로 목표의식인데 이것들은 교회 활동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취업 자원 센터는 LDS 비즈니스 클럽의 후원과 신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후기 성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권찬태 장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집중하고 잘 준비한다면, 취업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모임이 끝난 후 함께 모인 패널들과 참석자들; 청년들은 여러 질문들을 하며 정보를 얻었다(오른쪽)





집으로 가져가기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붙여넣은 '2011 EFY'가 막을 내렸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간증을 나누고, 훌륭한 수업을 듣고, 표준에 맞는 활동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EFY는 일주일로 끝나지 않는다. 집으로 가져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EFY에서 배운 교훈을 가정, 학교, 교회에서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집으로 가져가기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



집으로 가져가기란?

집으로 가져가기는 청소년들이 EFY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에 적용하고, 자신과 가족, 친구, 와드, 스테이크,

학교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EFY 활동이 가정에서 하는 활동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의 역할

청소년들은 EFY에서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 소속 와드나 지부의 청남 청년 활동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 매주 월요일 가정의 밤을 주도한다.
- 와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다.
- 매일 일지를 쓰면서 그날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록한다
- 가족들을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 봉사한다.
-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친다.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들이 인내심을 기르고, 교회의 높은 표준뿐만 아니라 '2011 EFY'의 주제인 신앙개조 제13조의 많은 덕목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녀들이 EFY를 통해 배우고 익힌 것과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비전과 꿈을 세우고 표준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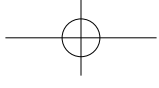
- 자녀들이 결심하고 지키고자 마음 먹은 것들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녀들이 확실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녀들의 변화를 믿고 기다려 준다.
- 자녀들이 결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녀들을 격려한다.
- 자녀와 함께 기도와 경전 공부 등을 하고 먼저 모범을 보인다.
- 자녀들이 EFY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족들과 공유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다.
- 함께 경전이나 리아호나 등을 읽으며 간증을 나눈다.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

부모의 입장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지도자의 몫이다. 청소년 지도자는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이끌고 그들이 영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청소년들을 위한 꾸준한 상호향상모임을 계획한다.
-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리 모임을 계획한다.
- 주일 학교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복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 꾸준한 접점을 통해 청소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 신앙개조 제13조를 생활에 적용하며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 청소년들이 EFY에서 지켰던 표준을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권유한다.
- 청소년들이 EFY에서 얻은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경전 읽기,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돕는다.
- EFY에서 느꼈던 영적인 분위기를 와드나 스테이크 청소년 모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모임을 준비한다.
- 청소년들이 EFY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 ■



복지의 기본원리¹³ ABC

보살피십시오

75 년 전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복지 프로그램이 전하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방법, 즉 봉사하기,
돕기, 보살피기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보살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의미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줌: 자원봉사자들이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보살피다.”(American Heritage ©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판, 판권 © 2000 Houghton Mifflin
Company, 2009년 개정됨. Houghton Mifflin Company에서
출판. 판권 소유)

현세적인 필요사항을 돌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의 예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나누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누군가를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미망인 가정의 찬장에
음식이 없는 것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테고, 지진이나
화재로 폐허가 된 집 잔해 위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도 그런 동정심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궁핍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염려하는 여러분의 깊은 연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초를 놓은 때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재물과 자신을 헌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분과
함께하도록 부르십니다.”(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22쪽) 현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사항을 돌봄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보기
전에 먼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권고를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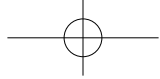
봅시다. “제 경험을 비추어보면 우리가
받는 매우 강력한 속삭임 중에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삶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경험과 심오한 계시를 일부분 놓칠 수도
있습니다.”(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0쪽)
현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사항을 돌보기
위해서는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의 간증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은 현세적인 필요사항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의로운
사람들이 입은 옷은 늘 자선이라는 금실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화롭고 지역 사회가 번영하기를
염원합니다. 악이 버림받고 선과 정의가 승리하는, 인정 많고
덕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전을
짓고,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며, 세상 사람들 눈에 긍정적으로
비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그 큰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며,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도 못 할 것이고,
가슴 속에 품은 환희에 찬 소망은 뜬 구름을 잡는 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성결하게 하는 복지 사업,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1쪽)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현세적, 영적 필요사항을 보살피
주셨습니다. 버튼 감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성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정결하게 하며, 들어 올려 주기
위해 성스럽게 계획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 주시며 한
율법사에게 주신 다음 권고를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성결하게 하는 복지 사업,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3쪽)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6명/해외 8명



권경민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후쿠오카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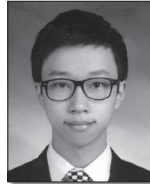
염대현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김담희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선교부



이동휘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대전 선교부



김승영 자매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캘리포니아 산호세
선교부



이승용 장로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선교부



김언정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선교부



이희병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도쿄 선교부



박다솔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 2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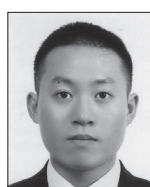
정진진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선교부



박소연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서
선교부



정한솔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선교부



박창언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천호 와드
부산 선교부



최찬일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버밍햄 선교부

새로 부름 받은 부산 선교부 회장



린 앨런 길버트
회장이 새로운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아 부인인
신디 브리검 길버트
자매와 함께 7월
1일부터 봉사하고

있다. 재닝스 회장의 뒤를 이어 봉사하게 된 길버트 회장은 유타 주 프로보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 부산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길버트 회장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기 전 프로보 MTC에 있는 지부에서 회장단으로 봉사했으며, 그 외에도 고등평의원, 감독, 감독단, 와드 선교 책임자, 스카우트 지도자 등의 부름을 수행했다. 그는 공인회계사이자 회계 법인 'Gilbert and Stewart'의 공동 대표로 사회 생활도 활발히 하고 있다.

길버트 자매는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상호부조회 회장단 등의 부름을 수행했다. 또한 교회 봉사 선교사로도 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지부 회장: Chapman, Todd Ezra 장로(전임: Monthomery, Hayden Keith 장로)

대구 스테이크

김천 지부 지부 회장: Wade, Steven Schroeder 장로(전임: 김종국)
안동 지부 지부 회장: 박정수(전임: 김옥태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감독: 정태현(전임: 유장철)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지부 회장: 손지익(전임: 박영철)

정정 기사

2011년 7월호 *리아호나* 73쪽의 "성전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항목 중 '꿀벌'을 '꿀벌집'으로 정정합니다.

지역 소식에서는 물문경 특집호인 10월호 리아호나를 준비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간증과 사연을 모집합니다. 물문경에 대한 특별한 간증, 물문경을 통한 개종 이야기나 재활동 이야기 등 물문경과 관련된 다양한 간증을 기다립니다.

분량: A4 한 장(사진 첨부)

메일: aron1979@hanmail.net(전건우 형제)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103-1번지 3층 전건우 형제 앞

전화: 02)2232-1441(내선: 564)